

추모식사

권이혁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오늘 5월 8일은 古下 宋鎮禹선생님의 112주년이 되는 生辰날입니다. 매년 이날이 되면 抗日獨立과 民主建國을 위하여 한몸을 바치신 先生님의 偉大한 발자취를 되돌아 보고 선생님을 다시 照明하기 위하여 많은 뜻있는 人士들이 이 자리에 參席해서 追慕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李在達 國家報勳處長등 여러 貴賓들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던 55년 동안 이룩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한없는 흠모의 정을 자아내게 하는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해방직후의 亂麻같이 얽혀 있던 시국을 당당하게 헤쳐 나가시면서 우리들이 실천해야 할 經世政略을 밝혀 주셨고 선생님께서 지니셨던 經世哲學이 지금도 변치 않고 찬란한 빛을 내고 있는 까닭입니다. 사실상 선생님께서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도입하신 선각자이셨고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창업이념을 확립하신 정치가요, 교육자요, 언론인이요, 철학가이십니다. 이에 앞서 일제시대에 선생님이 이 땅에서 이룩하신 수많은 업적에 대하여는 새삼스럽게 설명할 나위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펼치셨던 독립운동, 물산장려운동, 문맹퇴치운동, 민립대학설립운동 등은 영원히 우리 역사와 함께 그 존재를 誇示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이승만박사의 제의를 물리치시고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하신 일, 굴욕과 절망과 무지와 빈곤속에서 헤매는 겨레의 품속으로 몸소 뛰어들어 모든 고난을 겨레와 함께 겪으시면서 일제의 압박에 항거하고 독립을 위해 피투성이의 투쟁을 계속하셨던 일, 동아일보의 총수로서 민족정신을 代辯·鼓吹하신 일, 누차의 옥고를 개의치 않고 가시밭길을 헤쳐 나가신 일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해방직전에 4차에 걸쳐 총독부로부터 정권인수교섭을 받았으나 거절하셨던 일은 너무

나 유명합니다. 민족진영을 통합한 한국민주당의 수석총무인 동시에 중간된 동아일보의 사장으로서 나라 세우기에 침식을 잊으신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이 되었음을 우리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귀한 경륜을 지니신 선생님께서 해방직후에 우리들의 갈길을 밝히시고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시던 중에 돌연 흉탄에 쓰러지시게 된 것은 너무나도 놀라웠던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었으며 근래에 와서는 이 비참했던 일들을 새삼스럽게 되새겨 보게 됩니다.

선생님! 올해가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해입니다. 월드컵대회와 지방선거가 눈앞에 도사리고 있고 아시안게임과 大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국가적·민족적 과제인 남북관계도 종전과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반세기를 훨씬 넘게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미·일·중·러에 포위되어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 때로는 야속하기만 합니다.

어려운 때 일수록 선생님을 흠모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선생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환상에 젖게 되는 것을 어리석다고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근년에 선생님에 대한 재조명 운동이 활발한데 이러한 현상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은 주지되어 있는 일입니다. 재작년에는 '해방정국 정치지도자들의 사상과 행동: 한국 정치 이념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학술 발표회가 개최되어 선생님의 정치사상과 행동에 관하여 폭넓은 토론이 전개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일이 계기가 되어 선생님에 대한 조명은 더욱 뚜렷하게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선생님의 나라사랑 정신을 숭모하고 계승해 나가기 위해 홈페이지가 제작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생님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당시의 시대상을 연구하여 학위논문을 쓰는 젊은 학자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보고해 올립니다. 오늘은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金容浩박사가 선생님의 정치이념에 대한 재조명이라는 제목으로 추모 강연을 하십니다.

선생님께서 남기신 가지가지 어록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값진 교훈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광복운동의 바람직한 방법, 민족불멸론, 반탁운동 등에 관한 어록은 대단히 유명합니다. 힘들고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

는 우리들에게 선생님이 남기신 어록은 무한한 가치를 안겨주고 있으며 이 어록을 통하여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야할 길을 단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우리들의 심정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선생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사랑하시던 이 나라가 더욱 정의롭고 부강하며 통일의 길을 열어서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새삼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추모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